



■ 수확 시기는 사료가치와 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

출수기부터 수확이 가능하며, 건물 수량은 출수기부터 개화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많아지지만, 사료가치는 반대로 점차 낮아지게 된다.

■ 양질의 건초를 생산할 때

수확 적기는 출수기~개화 초기이다. 출수기에 수확하면 건물소화율이 79% 정도로 사료가치가 매우 높은 건초를 생산할 수 있다. 출수 후 10일 정도 지난 개화기에 수확하면 건초 수량은 증가하나 건물소화율은 73%로 다소 낮아지지만 급격한 사료가치의 저하는 없다.

■ 사일리지를 제조할 때

- 수확 적기는 출수 후기~개화기이다. 사일리지 수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한 시기이다.
- 출수기에 수확하면 수분 함량이 80~85%로 사일리지 제조에 부적합하여 1일 또는 2일 정도 예건이 필요하다.
- 개화기에 수확하면 수분 함량이 70~75%로 낮아져 사일리지 제조에 유리하고 건물 수량도 많아 조사료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다. 수분이 많을 때는 1일 정도 예건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한다.

■ 수확 시기별 수량 및 사료가치 변화

수확 시기	건물 수량		TDN 수량		사료가치(%)			
	kg/ha	지수	kg/ha	지수	ADF	NDF	TDN	건물 소화율
수잉기	4,818	67	3,311	69	25.6	47.4	68.7	82.8
출수 40%	7,244	100	4,806	100	28.6	51.5	66.3	79.6
출수 80%	9,147	126	5,701	119	33.6	55.7	62.3	75.3
개화기	9,646	133	6,009	125	33.7	54.4	62.3	73.3